삶의 수렁은 없고 삶이 수렁이다

(시편 70:1~5)

1.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3.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4.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5.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삶의 수렁은 없고 삶이 수렁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삶의 수렁은 없고 삶이 수렁이다'

교인들을 만나면서 인생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사와 상담하기를 원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삶의 수렁에 빠진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하는 장소를 옮겼더니 그렇게 잘 되던 장사가 1/3 토막이 나서 집세도 낼 수 없을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니 삶이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이 됩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 유학을 갔는데 한국에서 공부를 못하던 아이가 외국에 나가서도 공부를 못합니다. 한국에도 속하지 못하고 외국에도 속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야 할지 계속 외국에서 살아야 할지 근심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 채 대도시의 유학생활을 피해 외국의 시골로 들어갑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습니다. 형사법상 문제가 될 정도로 큰 사고가 나서 집안 전체가 흔들립니다. 삶은 그대로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수렁에 빠지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딸의 인생이 수렁에 빠져서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성경대로 보자면 딸을 포함해서 부모까지도 인생이 수렁에 빠지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도자기를 빚는 도공의 모습과 같습니다. 녹로에서 도자기를 빚기 시작하던 중에 도

자기의 모양이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모양이 망가졌다고 해서 도자기가 도공의 손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죽은 여전히 도공의 손 안에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의 형편을 어렵게 이끌고 계시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리심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수렁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곤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전히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넘치십니다.
교통사고로 감옥에 가게 되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가 없게 되었고 온 집안에 먹구름이 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여전히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결코 암흑의 수렁으로 빠져버리고만 것이 아닙니다.
욥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인류 역사상 욥과 같은 곤경을 당한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인생을 수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욥기 10장 7절을 보면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당한 무시무시한 상황은 하나님의 손을 떠나 별도의 수렁에 빠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8절을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이 구절들이 멸함을 받는다고 느낄 정도로 부정적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조차 주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망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려운 형편으로 이끄신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전반부입니다.
물론 수렁은 있습니다만 나의 인생과 삶은 수렁에 빠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인자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이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나의 인생 자체에 마음이 빠지는 수렁입니다. 삶이 빠지는 인생의 수렁은 없어도, 삶 자체가 마음의 수렁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념하는 것은 곧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삶이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하면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편이 되어버린 삶에 마음이 빠져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을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봅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살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한 탓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로 팔린 것도 옥에 갇힌 것도 인생이 수렁에 빠지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렁처럼 여겨진 인생의 단계들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대제국 총리자리로의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린 것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결국 수렁에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은 특이하게도 시편 40편의 13~17절 부분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똑같은데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의 횟수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표제어에서는 '다윗의 기념하게 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념할 내용을 자세하게 알기 위하여 시편 40편으로 돌아가 봅니다.
시편 40편 1~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보았던 시편 69편과도 통합니다. 이 40편과 69편은 '수렁'이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로 묶입니다. 40편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하였고, 69편 2절에서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시편 70편은 40편의 일부를 발췌하여 69편과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기념하게 하는 시는 수렁에 빠졌다고 여길 때마다 이 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은 수렁에 빠지는 법이 없지만 마음이 삶이라는 수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시편 70편의 1절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건져 달라'는 것은 수렁에 빠졌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건져냄이 고통으로 가득 찬 삶에 대한 건져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땅 위에서 벌어지는 곤경을 다른 상황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형편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형편이 바뀌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돈 문제가 있다면 보통 '돈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 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 상황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손을 뻗어주셔서 나를 이 돈이 없는 환경에서 건져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도대

체 하나님의 손을 어디로 뻗어서 구해달라는 것입니까?
몸에 병이 났어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을 어디로 뻗어서 건강한 상태로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곧 건져냄입니다. 그런데 삶의 어떤 상황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으로 상황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주관하시는 중에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원수들이나 요소들이 활성화됩니다. 병이 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가 수능을 치렀는데 성적이 좋지 않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적군과 대치하는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파수꾼을 세워놓고 병사들은 깊은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심을 믿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불꽃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는데도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원수와 요소들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꼭 사정하고 알려드려야만 비로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7~8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육체로 사는 형편에 대해 구할 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 손 안에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 밖으로 떨어져 나갔다면 걱정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든 똑같이 돈 문제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돈이 없는 형편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상태를 그대로 끌어안습니다. 돈 없는 형편으로 인해 생기는 불안과 걱정 염려를 통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민들은 돈이 없는 삶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모르는 선민의 특권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스스로 삶의 주관자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돈이 없는 상황이 마음에 들어온 상태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여 대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있기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을 끌어안은 채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선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삶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돈이 없는 형편은 걱정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거리는 마음이 그 형편을 담고 그 형편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형편이 바로 마음을 빠지게 하는 수렁임을

깨닫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선민입니다.
마음을 삶이라는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선민들에게는 성전이 필요했고 우리에게는 성전의 완성이신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삶의 수렁으로부터 건져내야 합니다. 삶이라는 수렁에 마음이 빠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죄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은 결코 행동으로 범법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범법은 죄악의 열매이고 증상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죄악은 내 마음이 세상으로 들어 찬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악이 바로 이렇게 수렁이 되어버린 삶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한 것도 바로 이 수렁이 된 삶에서 마음이 건져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하시며'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해치려 하는 자들의 어떠한 계획이나 몸부림도 아무 소용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나의 삶을 해치려 하지만 나는 마음이 삶의 형편으로부터 빠져나갈 길을 찾습니다.
이를 위해 성전의 번제단에서 죽는 어린양과 자신을 동일시하였듯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해야 합니다. 삶에 빠진 내가 죽는 것이고 삶을 가득히 채운 마음이 죽었음을 인정함으로 수렁에서 빠져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형편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원수들은 마음도 삶도 해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 삶의 수렁에서 빠져나온 마음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는 이유도 실상은 마음이 삶에 빠져 안주하려함에 있습니다. 삶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삶을 흔드십니다. 내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심으로서 그로부터 빠져나올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되면 남편은 사업장에서 뛰어다니고, 아내는 기도원에 가서 사십일 작정하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사업이라는 수렁에 빠진 마음을 건져내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사업이라는 수렁에 빠진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삶이 마음에 들어찬 상태, 삶이라는 수렁에 마음이 빠진 상태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에 빠져서 삶을 주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다짜고짜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늘을 향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늘은 바로 내 마음이 올라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마음이 이 땅의 삶의 수렁에 빠져 헐떡거려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삶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왜 그 삶

의 수렁에 빠져서 헐떡거려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며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처소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가 따라옵니다. 내 마음에는 삶의 이름들이 들어오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계시는 하늘로 내 마음이 올라갑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삶에 연관된 어떤 이름도 들어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이름이 들어온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을 때에 마음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계시는 하늘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수렁에 빠질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삶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수렁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하늘에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 삶이라는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이어서 5절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대상은 오직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노래하며 기억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사업이나 건강이나 자녀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사업과 건강과 자녀의 형통을 갈망하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삶의 문제의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갈망을 요구합니다. 자녀가 문제라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업이 문제라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건강이 문제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삶의 수렁에 빠진 마음이 건져지기를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지금 내가 처한 삶의 형편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수렁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단지 그 삶이 수렁이 되어서 내 마음이 빠져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 생활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